

16/09/04(주) 주일예배 / 제목 : 사데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3:1~5) p. 401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데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조는 갑자기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면 피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안 보이니 이제는 안심이구나.’ 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데 그것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제나 위기가 분명 옆에 있는데 지금은 안전하다고 믿는 증후군입니다. 정작하게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남보다 낫지. 그래도 남보다는 정작하게 사는 것이지.’ 하고 인생을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증후군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앓고 있습니다. 사데 교회는 바로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살펴보았던 네 교회의 특징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였던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데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데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사데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다보니, 사데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점점 죄로 얼룩져 가다보니 결국 사데 교회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데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 사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데'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데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데(Sardis)'는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5km 지점이고,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지점에 위치한 옛날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루디아' 라는 뜻은 '생산이 많은 땅' 이란 뜻입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의 세 교회는 루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데 도시의 지금의 명칭은 사르디스(Sardis)입니다.

실제로 사데 도시는 B.C 1200년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지대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상업 도시로 번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데는 내륙 도시로서 이름에 걸맞게(생산이 많은 땅)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사금이 나는 팍톨로스 강은 황금천이라 불릴 정도였고 금 채련법이 잘 발달되어 많은 상인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데 도시는 부유한 도시로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사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인상적인 로마 시대 유적들은 AD. 17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지진이 있는 후에 재건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가 이 도시의 재건에 큰 협력을 하였는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공 건축물들 중에 극장, 경기장, 대리석으로 된 도로와 다양한 신전들이 그때 세워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으며 이 도시에서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거행되었고 연일 음악과 축제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세워진 사데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절)**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이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처럼 일곱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 가운데 총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1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하셨으니 모든 교회들의 사자들을 손에 잡고 일하시는 교회의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자입니다. 당시 사데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총만한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총만함을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데 교회는 전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데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의 총만함을 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데 교회에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사데 교회의 사자가 바르게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다른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의 좋은 점을 안다 하시고 먼저 좋은 점을 언급하신 다음에 책망도 겸하셨는데 사데 교회는 시작부터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 사데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 등장하였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교회 재정도 넉넉하였으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절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데 교회에는 자칭 거짓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보니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았다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라고 주님은 사데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죽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조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교회의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른 데에는 소개되거나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마만큼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데 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2절)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이 도시에는 높이가 110m인 129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이스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둥을 견장한 장년 두 사람이 겨안아도 부족할 만큼 거대한 돌기둥입니다. 헤로도투스는 "당시의 사데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오락, 그리고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한 무역도시의 분위기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데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 하나 실상은 죽어버린 사데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처럼 사데 교회에 적절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데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 망한 전례를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450미터의 높은 절벽 밑에 세워져 있습니

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 공격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구 쪽만 잘 방어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있었습니다.

사대 도시가 첫 번째 망하게 되는 때는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크리시(B.C 560-546)'가 통치하던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B.C 559-530)' 왕이 그들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왕도 그 많은 군사를 동원했으나 정복하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레스왕이 선포합니다. "만약 사대 성을 무너뜨릴 지혜를 찾아오면 엄청난 포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 병사가 사대 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성위에서 절벽 쪽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실수로 투구(철모)를 성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절벽 틈새를 타고 내려와 투구를 주워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 몸집이 작은 병사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아주 작은 틈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야밤에 공격을 해서 사대 성은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뼈아픈 이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300년간 통치를 받았던 사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는 사대에 대한 통치권 쟁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가 두 번째 망하게 되는 때는 안티오쿠스와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에케아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아케우스가 안티오쿠스를 피해 난공불락의 사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일년 동안이나 안티오쿠스는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한 군인이 과거 페르시아 때에 이용했던 그 묘안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용감한 특공대원들이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보초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깨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가 멸망했던 그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대 성은 무려 두 번씩이나 이런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사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방심하며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덮쳐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삼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대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 칭찬거리를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서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자만감이 있지 않는가 늘 자문해봐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진정 깨어있는 성도들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비록 잠깐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급히 불을 밝혀 그 잔치에 참여하면 그만입니다.

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2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3절)

예수님은 사데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에 이어서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 권면 내용은 감사를 회복하고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방 교회들은 복음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가족과 민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개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룰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다시 돌로 요약할 수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던가, 아니면 자신이 깨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는 처음 믿을 때 어땠는가를 돌아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QT를 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할 일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데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데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1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2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3절) **4.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4절)**

그러면 사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사데 교회에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데 교회에 책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사데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시는 희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 소수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

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몇 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흰옷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을 세상의 죄악을 재는 바로미터로 세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또한 승리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승리를 축하할 때 만백성이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도시를 '흰색의 도시'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1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2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3절) 4.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4절)

5.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만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이들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흰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와 동등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것도 대단한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마케팅의 방식으로 진단하며 연구하는 학자 중에 조바네(George Barna)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죽은 개구리(The Frog in the Kettl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풀어버리고 안일의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죽어 가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요약정리 / 사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1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2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3절)
4.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4절)
5.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마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눅 12: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